

천의와 민심의 표현, 대륙민중 13만4천명이 장쩌민을 고소

2015년 5월 말부터 8월 6일까지 이미 국내외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 13 만 4 천명이 중국 최고검찰기관에 장쩌민을 고소, 고발했으며 파룬궁을 박해한 범죄에 대해 중국 최고검찰기관에서 입건하고 추적조사할 것을 독촉했다.

우체국 직원의 지지

중국대륙에서는 5 월 말부터 장쩌민 고소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대륙민중들은 각지 우정계통을 통해 한 통 한 통의 장쩌민에 대한 고소장을 북경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보냈다. 사천의 한 파룬궁수련생은 우체국 직원에게 “상급에서 장쩌민 고소장 우편을 처리해 주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다. 우체국 직원은 “처리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일을 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곧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모두 와서 부치세요. 장쩌민 그 나쁜 놈을 응당 기소해야 합니다. 그는 너무 나쁩니다!”라고 말했다.

광둥 우정계통의 직원들은 보편 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의 정의적 행동을 지지하며 장쩌민을 고소하는



8 월 1 일, 파룬궁수련생은 시카고 차이나타운에서 대 행진하여 장쩌민 고소 열풍을 성원

수련생에게 열정적으로 협조해주었다. 그들은 장쩌민을 법정에 세우는 것을 희망한다 했다. 어떤 사람은 “장쩌민은 너무 나쁩니다. 갖은 악행을 다했고, 중국의 전통 문화와 사상을 유린했고, 또 극단적으로 부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장쩌민 고소 열풍에 고무된 대륙 관광객들 앞 다투어 ‘3 퇴’

지금 유럽은 여행 성수기다. 관광명소에서 중국대륙 관광객의 ‘3 퇴’(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를 돕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들은 진상자료를 나눠주고 ‘3 퇴’를 권하기에 앞서 적어도 13 만 명의 국내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이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고,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알려 준다. 이 소식을 들은 관광객들은 흥분해서 말한다. “참 잘 됐어요!” “형세가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세상이 변한다고 하니 정말 변하네요!” “장쩌민마저 끝장났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저도 지금 당장 탈퇴하겠습니다!” 그들은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서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잘 했습니다.” “정말 통쾌합니다! 폭죽을 터뜨려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세계 각지의 성원

최근 프랑스 변호사 윌리엄 부르(William Bourdon)는 국제사회에서 중국 이외에서 합작하여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한 일이라며 본인은 이런 안건을 받고 싶다면 각 나라 변호사와 합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8월 1 일 호주 시드니에서 ‘전 세계 장쩌민 고소 세미나’가 열렸다. 중국문제 연구학자이며 철학 박사인 링샤오후이(凌晓辉)선생은 2002년 7월 1 일에 효력을 발생한 ‘국제형사 법원 로마 규약’ 중의 ‘반인륜 죄’ 정의를 인용하여 장쩌민이 파룬궁에 범한 죄행은 ‘반인륜 죄’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례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게 그를 교수대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30 일 뉴질랜드 마오리 세습 추장 Amato Akarana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는 최악이 극악무도합니다! 중국정부는 마땅히 즉시 그를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죽인 중에도 적지 않은 가정이 파룬궁을 수련합니다. 다년 간 나는 줄곧 모든 파룬궁수련생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

연변 박해 소식

연변 김영실, 왕희봉, 박일화 등이 세뇌반에 납치되다

8월 10 일, 길림성 연변 파룬궁수련생 김영실, 왕희봉, 박일화와 이씨 파룬궁수련생 4 명이 장쩌민 고소장을 부치는 과정에 화룡에서 납치되었다. 소식에 의하면 현재 강압적으로 서성(西城) 세뇌반에 감금되어 박해 당하고 있다.

선양시 선베이신취 파룬궁수련생 왕永利, 억울하게 4년 판결 받다

2014년 8월 8일, 유리 표박하고 있는 랴오닝성 선양시 선베이신취 마강촌 파룬궁수련생 왕永利(王永利)는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 납치되어 현재 억울하게 4년 판결을 받고 길림성 감옥에 수감되어 교육과에서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



얼마 전에 그 지역 '610'(전문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중공의 불법적인 조직)은 소위 '안정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실행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을 조종해 현지 블랙리스트에 있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새로운 체포를 진행했다.

모 도시 파출소의 한 경찰은 이전에 진상을 모르기 때문에 본 관할지역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었다. 그에게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생은 그를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자비롭게 그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주었다. 그는 매번 파룬궁수련생 집에 와서 소위 상부의 체포, 납치 '임무'를 집행할 때 열정적

경찰의 선택, 파룬궁수련생 체포 거절



인 환대를 받았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어떻게 '진(眞)·선(善)·인(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지 듣고, 파룬궁이 질병 치유에 얼마나 신기한 효과가 있으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정화해 사회도덕이 향상하는지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 파룬궁수련생들에게서 파룬궁의 선한 힘을 보았

으며, 중국공산당이 유언비어를 날조해 중상 모략한 속임수를 보았다.

이번에 상급이 그를 지명해 관할구역 파룬궁수련생을 잡아오라고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그들(파룬궁수련생들)은 가리킴은 모두 좋은 사람인데 붙잡아서 뭐 합니까? 저는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의 상급은 말했다. "네가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꼭 체포할 심산이라 그는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파룬궁수련생에게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간 경찰들은 허탕을 치고 말았다. ◇

사법국 간부: 나는 정말 탄복합니다! 그들은 모두 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밍후이왕]나는 병으로 휴식하는 사법국 간부이다. 나는 병으로 휴식하기 전의 한차례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세뇌반에 참여했었다. 파룬궁 수련생과 접촉하는 과정에 나는 그들의 자선(慈善)과 견인(堅忍)한 정신을 보았다. 나는 그들을 박해하기 싫었으며 경찰이 그들을 때리는 것을 발견하면 나는 될 수 있는 한 제지했다. 파룬궁 수련생과 담화하는 과정에 나는 그들이 매우 많은 고통을 겪었고 매우 큰 시달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공이 그들에게 집행한 것은 정말로 "명예상에서 더럽히

고 경제상에서 절단하고 육체상에서 소멸하라"는 최악의 정책이며 위에서 전화시키려 하면 아래에서는 폭력으로 집행했다. 파룬궁 수련생은 수시로 불법적인 박해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련생들은 대선대인(大善大忍)의 마음으로 그들을 전화시키고 그들을 박해하는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도리를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들한테서 감동받았다.

나는 탄복했다! 리대사님은 고난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고 있으며 파룬

궁수련생은 모두 대단합니다. 그들은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포들 파룬궁 수련생들이 한 말을 믿으세요, 당신은 큰 익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리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파룬궁 수련생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들 하루 빨리 자유를 얻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전법륜(轉法輪)》을 보고 있으며 당신들이 자유로울 때 나도 당신들 따라 함께련공하겠습니다..

[밍후이왕] 한번은 우리가 외출했을 때 파룬궁 진상을 알렸던 오랜 이웃을 만났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흥분해서 "아들의 체장염이 완쾌됐어요!"라고 했다.

그 이웃의 아들은 만성 체장염에 걸려 자주 배가 아팠다. 그날도 아들의 병이 재발해 배가 심하게 아팠다. 그녀는 "당신이 전에 가르쳐 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眞善忍好)!'를 염하라고 한 것이 생각났어요. 전에는 그리 중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들 옆에 앉아 끊임없이 염했다고 했다. '파룬따파하오, 찌싼런

꿈에서 신선을 만나 아들이 완쾌

하오.' 대법 사부님이 우리 아들을 좀 구해주세요!"하면서 계속해서 염했다고 했다. 이렇게 하자 아들은 조용해지고 잠이 들었다고 했다.

얼마 후 아들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방금 꿈을 꿔는데 꿈에서 흰칠한 사람이 나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는 내가 아프다는 곳을 손으로 누르며 '아직 아파요?'라고 물었어요. 나는 '아프

지 않아요.'라고 했어요. 또 다른 쪽을 누르며 '아파요?'라고 물어 나는 '아파요.'라고 했어요. 그는 또 한 번 힘껏 누르고 '너 이제 나았어.'라고 했어요. 지금 아프지 않아요. 엄마, 나는 다 나았어요!"

여기까지 말하고 이웃은 거듭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나는 "우리 사부님께 감사하다고 하세요."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맞아요, 대법 사부님 감사해요!"라고 했다. ◇